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한가?

양성만(기학연구회 이사, 우석대 철학 교수)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 하나가 ‘현대사회와 규범’이라는 과목입니다. 말하자면 윤리 과목인데, 제목을 요즘 식으로 약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강의 스타일도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는 - 내용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해도 이미 머리가 다 커 버린 학생들이 선생이 제시하는 규범을 그대로 따라올 리가 없겠지요 - 주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킵니다. 낙태니, 배아복제니 하는 주제를 잡아 발제 및 찬반 토론을 시키고 다시 조별로 나누어 그 주제와 관련된 몇 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교수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요즘 학생들의 가치관을 제가 배우는 셈입니다.

매 학기에 다룰 주제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지만 결국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고전적인 주제들이 대부분 선택됩니다. 대개 사형제도나 안락사, 배아복제, 낙태와 같이 생명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혼전동거, 동성애 등과 같은 사랑과 성에 관한 것입니다. 몇 학기 거듭해서 이 과목을 맡다 보니 요즘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그들의 육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론을 맡은 학생들이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을 나중에 길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왜 그런 발표를 했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찬성론을 주장하는 데 하나도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찬성론이 반대론보다 오히려 우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몇 학기 만에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 수업에서 보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영원한 사랑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전동거에 관해 토론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하겠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 몇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지만 그 변화마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

“사랑보다는 정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을 통해 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광고에서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가능하지 않다.”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같은 설렘과 같은 감정은 느낄 수 없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소중한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므로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함.”

“변하지 않는 사랑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랑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과 신뢰감이 있다면 가능하다.”

“싸우면서도 정드는 게 사랑”

사실은 제 질문이 모호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늘 변화가 있고 기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려고 했던 것인데, 짧게 묻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할까?’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답변 중에는 질문보다 더 똑똑하게 문제의 의도를 바르게 간취하여 어떤 조건이 성립할 때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겠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위의 답변들을 보면 영원한 사랑의 가능론과 불가능론이 대략 반반이지만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가능론이 더 강세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손을 들거나 발언하는 학생이 없었으므로 물음만 제기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아쉬움이 더 큰 것은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있는데도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발표되는 것을 별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이 창조한 것이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창조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와 같은 주장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보통 거기에서 그칩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 제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이니 이것은 깨뜨려서는 안 된다.’ 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모범이므로 거기에서 사랑을 배워 실천하면 부부도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와 같은 좀 더 고급의 기독교적 진리나 지혜는 듣기가 힘듭니다. 더 괴이한 현상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자인하는 사람인데도 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견해를 표방하는 경우조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신령한 전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영토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교실의 분위기만 놓고 말하자면 우리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몇 가지에만 그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논하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며, 따라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출발점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지만 왜 사람의 생명은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존귀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했는지를 알아야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실질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복음의 초보를 물론 가르쳐야 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가르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힘써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하여 복음의 호방한 내용이 말뿐 아니라 신자의 생활로 증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세상에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권능과 지혜가 크신 분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스트모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랑의 문제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윤리적 규범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도 이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십 명 되는 수강생들 중에 절대적인 규범이 있다고 답하는 학생들은 겨우 두셋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진리가 객관적이냐, 아

다면 상대적이냐 하는 문제보다 실질적인 것이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진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생활에서야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신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끝**